

**사무엘상 28.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다시 은혜를 베푸는 다윗 (삼상 26 장 1-24 절)**

**들어가기**

26 장은 지난 24 장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던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죽이고자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그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지난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두 번째 은혜를 입으며 목숨을 빛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제차 강조하였고,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겨 주실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위해 다시금 복을 빌어 준 뒤,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회개했던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았습니다. (1-5 절)**

1) ‘십’ 사람들은 다시금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리며,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1 절)

- ✧ ‘십’(Ziph)은 헤브론 남동쪽 약 8km 에 위치한 유다의 작은 성읍.
- ✧ ‘기브아’ 는 사울의 고향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
- ✧ 곧 저들은 또 다시 사울의 집까지 일부러 찾아가 다윗을 밀고했다는 것!

■ 참고 : 본 장의 내용이 23 장의 사건과 같은 사건인가?

-> 분명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머물렀던 장소가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

23 장 19 절, ‘그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6 장 1 절,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첫 번째 장소 = ‘광야 남편’ + ‘하길라 산 수풀 요새 (Horesh, on the hill of Hachilah

두 번째 장소 = ‘광야 앞’ (문자적 의미:‘광야의 얼굴’) + 하길라 산 (the hill of Hachilah)

곧 다윗은 아비가일과 결혼한 후에 다시금 숨기 좋은 하길라 산 근처로 거처를 옮기려 했던 것 같고, 이를 목격한 십 사람들은 지난 번 다윗을 밀고하여 잡는 것을 실패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며, 또 다시 기브아까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2) 이에 사울은 다시 3000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2-5 절)

- ✧ 십 사람들의 1 차 고발 때도 사울은 3000 명의 정예 병사를 모아 추격.

■ 그럼 우리는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사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본성으로 인해 거듭된 범죄함으로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삶까지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성령의 은혜와 지도하심을 구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4 절)

■ 주목 할 것! - 이전에는 그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만 급했던 다윗이 이제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게 했다는 것!

곧 지난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사울의 생명까지 구원해 준 경험을 한 다윗의 믿음이 이제 더 담대해져 비록 전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을 담대하게 움직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묵상하는 삶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 그 결과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5 절)

☆ 군사령관 - '넬의 아들 아브넬'

- '넬' 은 사울의 숙부였고 그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음.
-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세로 행세. (삼하 2:8-11)
- 이후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통한 일이 '이스보셋'에게 발각돼 관계가 악화.(삼하 3:7-11)
- 결국 '이스보셋'의 나라를 직접 다윗에게 넘기고, 다윗 아래로 들어감. (삼하 3:17-21).
- 이후 전쟁 중 요압의 동생을 죽여 요압에게 억울히 죽임을 당하며 생을 마감. (삼하 3:27)

■ 참고: 5 절, '진 친 곳..., 둘러 진쳤더라' 의 표현

- ☆ '진' 이란 원어적 의미는 영어로 'Barricade'를 의미.
- ☆ 당시 Barricade 는 주로 병거와 마차로 이뤄졌을 것 (Calvin, Smith, Keil).
- ☆ 또한 그 주위를 3000 명의 정예 병사들을 둘러 쌓고 있었음!

2. 이때 다윗은 용감한 장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6-12 절)

1) 다윗은 헷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에게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6 절)

- ① 헷 (the Hittite) 사람, '아히멜렉' - (이름의 뜻은 '왕의 형제' 가나안식의 이름)
  - 헷 사람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 중의 하나로(수 3:10)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고 있었으며(창 15:23),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 ( 사 1:6; 왕상 9:20).
  - 참고로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음(삼하 11 장)

- ②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계신다' 라는 의미)
  - '스루야' (Zeruiah)는 그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 '나하스' 라는 남자에게서 낳은 딸.(삼하 17:25) 곧 다윗에게는 이복 누님이라 할 수 있음.
  - 곧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 이들은 이후 다윗의 30 용사 중 하나가 되어 다윗 왕국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됨(삼하 23:18, 19;대상 11:20, 21).

■ 주목할 것! -> 다윗은 이들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사울에게 갈 것인지? 물었다는 것!

- ① 그럼 왜 다윗은 이들을 대리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진영으로 가려 했을까?

- ② 이때 아비새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다윗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며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 장 23-24 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인격을 비롯한 생명까지도 부인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의 각오를 다지는 성도들이 됩시다.

■ 참고: 성경학자 Klein 의 재미있는 지적!

- ① 성경은 아히멜렉을 아비새 보다 먼저 소개했다!
  - > 곧 당시 아히멜렉이 아비새 보다 분명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
- ② 그러나 그는 다윗의 요청에 완전히 침묵했다!
- ③ 이후부터 다윗과 함께한 성경의 역사에 아히멜렉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 > 곧 그의 소심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스런 다윗의 사역에서 점점 자신의 위치를 빼앗기며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2)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7 절)

- ① 이때 사울의 창이 사울의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 당시 왕의 '창' 은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
  - 곧 자신의 머리맡에 창을 꽂아 둠으로써 왕의 위엄을 높이며, 왕의 위치를 확인시킴.

3) 이때 아비새는 자신이 단번에 사울을 창으로 죽일 수 있다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해 줄 것을 구했고, 다윗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8-11 절)

■ 주목해야 할 것! ->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아비새와 다윗의 관점의 차이!

- ① 아비새의 관점
  - 8 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 곧 이 상황을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본 것!

② 다윗의 관점

- 9 절,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 11 절,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 10 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런 다윗의 관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란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침해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하고 모독한 결과라고 다윗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혹은 말씀에 근거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관점 혹은 세상적 관점으로 환경을 보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12 절)
- ☆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가져오게 함.

■ 특별히 주목할 것! ->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란 사실!’

- ☆ 참고로 ‘깊은 잠’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르데마’ 란 단어인데, 이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어 하와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을 때의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창 2:21).
- ☆ 곧 다윗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창조 때와 같은)가 이때 임했다는 사실!!
-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다윗은 이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나아가 사탄의 유혹!’ 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 ☆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 사울의 진영을 빠져 나온 다윗은 큰 소리로 군사령관 아브넬을 꾸짖었습니다. (13-16 절)

1) 아브넬을 꾸짖는 다윗과 아브넬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 ① 다윗 1: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기에 상호 친분관계가 있었음..
- ② 아브넬 1: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이는 곧 사울을 깨우려는 다윗의 의도임을 알았다는 것!
  - 곧 이 장면에서도 사울에 대한 예를 갖추는 다윗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Keil & Lange).

- ③ 다윗 2 :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 당시 아브넬의 직책이 왕을 경호하는 것이란 사실을 지적!
- ④ 다윗 3 :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 그런데 그 직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증거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제시!

곧 다윗은 아브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 것을 꾸짖으면서, 이를 통해 자신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모든 군사들 앞에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5.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사울에게 다윗은 부디 자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7-20 절)**

- 1)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이라 불렀습니다. (17 절)
  - 다시금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감동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 2) 이런 사울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 ① 18 절, ‘어찌하여...나를 쫓으시나이까?... 무슨 악이 내게 있나이까?...’
    - 이미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뒤, 자신이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며 용서를 구해 놓고서는 왜 또 다시 자신을 추격하는지? 물었다는 것.
  - ② 19 절,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치 않던 사울에게 일찍이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기 위해 던졌던 표현!
    - 따라서 어떤 학자는 이 말이 다윗의 입을 통한 사울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
    -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이 말을 또 무시하고, 27 장에서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삼상 31:4-6).

■ 특별히 19 절에서 주목할 표현!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 ☆ 우선 다윗은 사울을 충동하여 자신을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제물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
- ☆ 그러나 자신이 믿는 분은 일부러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분명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선언했다는 것!

- ✧ 그러면서 저들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다윗 자신도 여호와와 기업에 머무르지 못하게 막는 악한 사람들임을 선언!
- ✧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오해하여 죽이려는 일을 멈추어 주기를 간절히 요청!

**6. 이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금 인정하며 다윗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1-24 절)**

- 1)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21 절)
  - ✧ 사울의 반성을 주목해 보면, 자신의 일을 (1) `범죄'로 인정. (2) `어리석은 일'로 인정, (3) `대단히 잘못된 일'로 고백.
  - ✧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오라' 고 요청함. - 이는 옛 직책으로의 복귀를 가리킨 말.

그러나 이런 사울의 회개는 결코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사울의 회개를 '습관적인 반성과 후회'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를 (밧세바를 범한 후) 비교해 볼 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인정하고 뉘우치며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복적으로 후회하긴 했지만, 한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2) 다윗은 자신이 가져온 사울의 창을 사울의 소년에게 넘겨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지킨 자신의 생명을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 3) 사울은 자신이 죽이려 한 다윗을 위해 복을 빌어 준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고 축복함!
  - ✧ 잠언 16 장 7 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복하게 하시느니라'

**7. 참고로 오늘 본문을 잘 읽어 보면, '여호와' 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4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 ✧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엿보게 하는 것.
- ✧ 오늘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